

작가 이름	마지마 료이치
프로필	1970년대 중반부터 스페인에서 전통 회화와 데생, 미국에서 판화와 개념 예술을 공부했다. 대중적이고 유쾌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90년대 이후 일본 국내외의 미술관, 화랑에서의 개인전, 그룹전에 다수 참가.
작품 제목	히노마루 도시락 ( 전시장 이름 : 니가타역 CoCoLo 서쪽 N+ / 번호 : 万9 )
본문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인 '음식'을 주제로 독특하고 자극적인 작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라면 그릇에 잠겨 국수를 후루룩 먹는 《누들 보이》, 거대한 햄버거와 계란말이 등 키치하고 예상을 깨뜨린 음식물 오브제로 모두를 감탄시켜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득 담긴 흰쌀밥에 매실장아찌가 놓인 《히노마루 도시락》. 심플하고 활기찬 작품들이 니가타의 음식을 상징합니다.